

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

- 11.8.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안종주)은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인 11월 8일에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점검한다.

2023년 9월 말 “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”에 따르면, 전체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동기(510명) 대비 10.0% 감소했으나,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15명(18.3%) 증가했다.

< 건설업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 현황 >

구분	총계	50억 미만	50억~120억	120억~800억	800억이상
'22년 3분기	253	171	24	23	35
'23년 3분기	240	143	22	42	33
증 감	△13	△28	△2	19	△2
증감율	△5.1	△16.4	△8.3	82.6	△5.7

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, 특히 사고사망자 수 증가 폭이 큰 120~800억원의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* 등을 집중점검한다. 특히, 최근 건설현장에서 다발하고 있는 ‘추락’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 추락방지조치인 개구부 덮개 설치,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여부,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수립·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.

* <추락> 비계, 지붕, 사다리, 고소작업대, <끼임> 방호장치, 정비 중 운전정지(Lock Out, Tag Out), <부딪힘> 혼재작업, 충돌방지장치

** <주요 사고사례> ▲ 11.2. 고소작업대에서 지붕 판넬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, ▲ 9.6. 소방대피시설 화재피난구의 난간 고정 작업 중 단부에서 추락하여 사망, ▲ 7.29. 고소작업대 탑승하여 통신케이블 정리 작업 중 교통안내 표지판에 부딪치면서 추락하여 사망

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연말까지 건설현장·추락사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. 현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초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.”라고 당부했다.

붙임: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내자료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 김 동 현 (044-202-8901)
		담당자	서 기 관 용 윤 서 (044-202-8902) 사 무 관 이 철 호 (044-202-8904)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 경 근 (044-202-8935)
		담당자	연 구 관 민 병 윤 (044-202-8943)



